

교회소식

01.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예 배

수요기도회 말씀은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원로)께서 전해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성탄절 예배

성탄절 예배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① 성탄축하의 밤: 12.24(주일) 오후 7시 / 예루살렘성전 본당
- ② 새 벽 예 배: 12.25(월) 오전 6시 / 베들레헬성전 본당
- ③ 성 탄 절 예 배: 12.25(월) 2부(오전 9:10), 3부(오전 11:20) / 예루살렘성전 본당
※ 성탄절 예배는 2-3부 두 번만 드립니다.

04. 2023-24 Love In(러빙) 축제

12.31(주일)과 1.7(주일) 2주간 새가족과 장기결석자, 온라인 성도들을 초청하는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을 전도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임 명

2024년 남선교회 회장단(추가), 여선교회 회장단(추가)이 임명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sch.or.kr)

06. 금요구역장·권찰교육

금요구역장·권찰교육은 금주부터 방학입니다.

07. 유아세례식

- 유아세례식이 12.17(오늘) 주일낮예배 4부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 신청은 사무처와 교회 홈페이지(www.msch.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자녀가 6세 이하인 자
- 문의: 사무처(☎ 02-440-9104)

08. 알 림

- ①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산승인을 위한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일시: 12.17(오늘) 주일찬양예배 후
- 장소: 예루살렘성전 본당
- 대상: 18세 이상 세례·입교인
- ② 2024년 교회달력을 실로암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벽걸이용: 3,000원)

지난주말씀

자유함을 얻게 하는 두 개의 기본기
갈라디아서 1장 6-10절 | 김하나 담임목사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무언가를 끊어내거나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중에 유대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이 할례, 율법, 절기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멍에를 메고 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하며 잘못된 것을 따르는 이들을 비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잘못된 것이 섞이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단한 복음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자유와 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단단한 멍에는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단한 시선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거기에 붙잡혀서 나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며 살게 됩니다. 사울도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말에 사로잡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유함이 올 수도 있고, 온갖 것에 묶인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단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배진태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박고운 이승갑

목사

김남수 김동민 김동욱 김동진 김득열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예셀 김요한 김은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우진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동신 신재희
신중현 우종현 유태규 윤석진 이정민 이경환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은세 이재민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묵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해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민음 김석현 김승택 박경애
박근우 박보하 박재현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준민 이준식 임기도 정구현

교육전도사

강찬용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김하성
문태은 박경민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민기
이성준 자 췌 장건희 차주현 최하정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2023년 12월 17일
44권 51호

오직주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8절

